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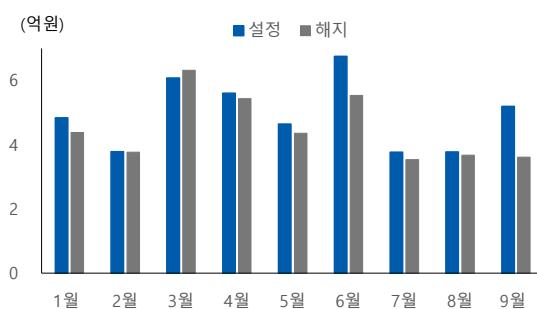


우리도 미국도, 9월엔 저가매수

1. 국내주식펀드, 6월과 9월에 저가매수 증가

- 9월은 인플레이션과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이 컸음.
-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6월과 9월에는 국내주식(ETF포함)펀드로 유입이 크게 늘어남.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6월보다 9월의 유입 규모가 작아짐
-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6월 이후 유입규모가 줄어들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음.

국내주식펀드, 6월과 9월에 저가매수 유입되면서 월간 순 유입규모 1조원 이상 순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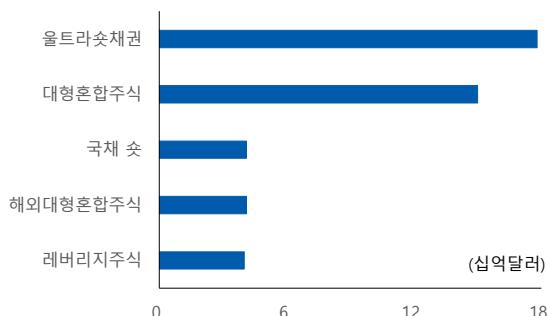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 ETF, 주식과 채권 모두 투자 증가

- 9월 글로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채권 ETF 전체적으로 1330억달러 순유입.
- 미국 ETF 세부 유형 중에서는 채권Short 유형과 미국과 해외의 혼합주식, 레버리지주식 등으로 투자자금이 가장 많이 늘었음.
- 미국 ETF시장의 투자자들은 주식은 과매도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저가 매수를 늘리고, 인버스주식ETF를 매도

미국ETF 시장, 울트라숏채권과 대형혼합주식로 투자 증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주식펀드, 6월과 9월에 저가매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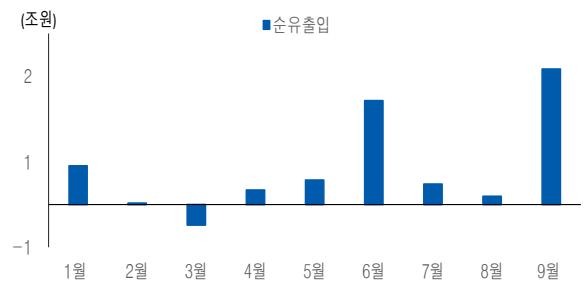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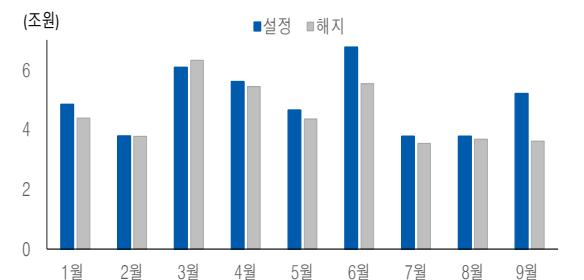
지난 9월은 쉽게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연준의 긴축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봉쇄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9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316.6포인트가 빠지면서 2200선 아래로 내려섰다. 지난 6월에도 353.3포인트가 하락하였는데, 6월 국내주식(ETF포함)펀드로 6.7조원이 유입되고 5.5조원이 유출되었다(1.2조원 순유입).

9월에는 국내주식(ETF포함)펀드로 5.2조원이 유입되고 3.6조원이 유출되어, 1.6조원이 순유입되었다. 6월보다 9월의 월간 유입 규모와 유출규모가 줄어들어, 국내주식펀드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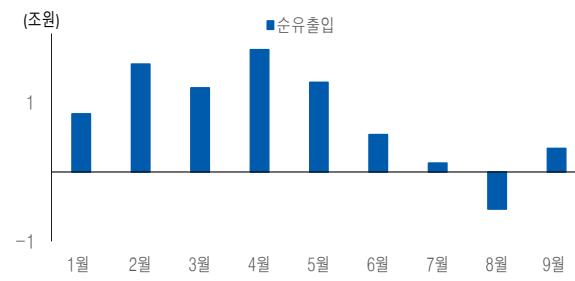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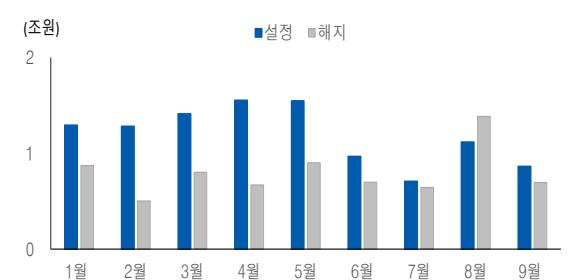
해외주식펀드(ETF포함)은 6월 이후 유입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5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주식펀드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8월 해외 증시가 상승하면서 환매규모가 연초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 6월과 9월에 저가매수 유입되면서 월간 순유입규모 1조원 이상 순유입 .



자료:금융투자협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주식펀드, 3월 이후 유입규모 감소로 순유입 규모 감소



자료:금융투자협회,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 ETF, 주식과 채권 모두 투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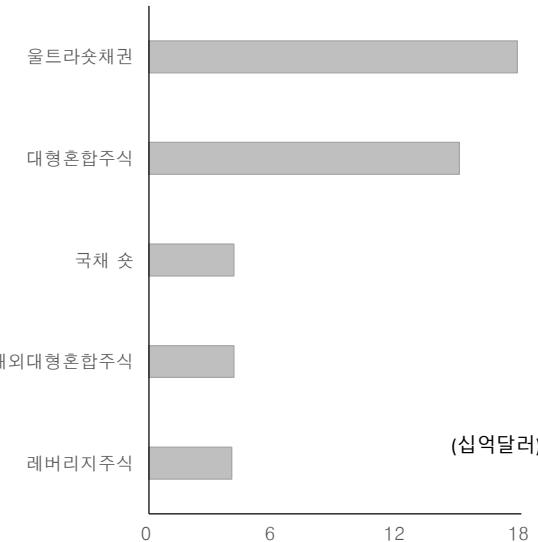
9월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모두 변동성이 커지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미국 ETF시장에서 채권 ETF로는 1330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미국 등 주요국가의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가 늘어나면서 주식ETF로도 1070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반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ETF에서는 430억달러가 순유출되었다.

미국 ETF 세부 유형 중에서는 채권Short 유형과 미국과 해외의 혼합주식, 레버리지 주식 등으로 투자자금이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투자자금이 가장 많이 빠진 유형은 금융섹터주식과 물가연동채권, 인버스 주식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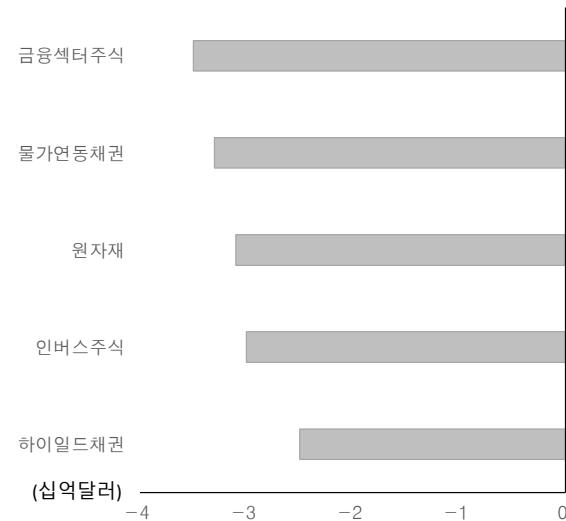
채권ETF는 급격한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솟 포지션을 취하거나,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들이 주식은 과매도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혼합주식ETF 유형의 저가 매수를 늘리고, 인버스주식ETF를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차트3] 미국 ETF 시장, 울트라숏채권과 대형혼합주식로 투자 증가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미국 ETF 시장, 금융섹터주식과 물가연동채권 등에서 자금 유출.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